

[ 오피니언 ]

다산포럼

최일남



이달 그믐밤에도 서울 보신각에서는 제야의 종을 칠 것이다. 종소리는 이번에도 안달복달 한 해를 산 사람들의 마음을 포근히 감싸고, 저마다 다른 모종의 희망을 부추기듯 느릿느릿 퍼질 것이다. 여음(餘音)이 더 좋은 울림을 온 세상 안방에까지...

에 상응하는 예로 고려장 시절의 우탁(禹奭)을 들 수도 있을까.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렀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러' 읊었던 그의 회작(畵作)을 생각하면서.

선달에 시를 읽는다

백발쯤이야 요즈음 세상에 아무 것도 아니다. 염색으로 '신장개업'이 수시로 너끈하다. 노이 부시계 가곤 '독야백백'의 머리를, 러닝 머신 등으로 제법 매끈해진 노안이 받쳐주면 더욱 근사할 테다.

거기까지는 좋는데, 평균 수명이 높아 지는만큼 아이를 낳지 않는 추세가 갈수록 심해 노년은 속이 편치 않다. '시집 안 가겠다'는 노처녀의 큰소리와 '어서 죽어 야겠다'는 늙은이의 엄살을 공인된 거짓말로 치는 사회에서, 전자의 호언은 어느덧 참말로 굳어 간다. 반대편의 독신남도 늘었다.

여론은 그때마다 20년 30년 후의 고령화사회 격정으로 땅이 꺼진다. 언젠가는 다섯 젊은이가 일로(一老)를 건사해야 한다

더니, 최근엔 셋이서 부양해야할 지경이라는 것이 담겨 쓴 비관의 골자다. 안 그래도 공짜표를 받기 위해 지하철역 창구에 손을 내밀 적마다 조금 미안하고, 대여섯이 늘어났을 때는 많이 어색했다. 한데 이제는 모든 청춘남녀의 눈치에도 신경을 쓰게 생겼다.

그렇다고 근전은 떨어 무엇하리. 부끄럽게 산 지난 날들을 새삼 돌이키며, 지난해 입적하신 봉암사 조실(祖室) 서암스님이 열반승을 묻는 제자에게 하신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할 시간이다.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갔다고 해라

이르신 오도송을 감히 떠올린다. 다시 찾아 읽는 시인들의 짧은 시 몇몇 편 역시 세월에는 한결 따뜻하게 다가온다.

"체함을 앞지르는 천재가 있을 거나/ 세월을 능가하는 스승이 있을 거나/ 빛바래고 사그라지고 병도 들어 불멸도 하지 않/ 만 놓 고 늙자/ 늙어를 가자/ 눈물 도는 두 눈 놀러를 감고/ 값이 그리고 오오래 감사하자/ 오늘은 오늘만큼 늙어서 고맙다고/ 고마운 줄 알게 되어 더욱 고맙다고." (유인진 '오늘만큼의 축복' 전문.)

황지우 시인의 '늙어가는 아내에게' 끝 연(聯)은 어떤가.

"이제 내가 할 일은 아침 머리맡에 떨어진 그대 머리카락/ 침 문힌 손으로 짚어내는 일이 아니라/ 그대와 더불어 최선을 다 해 늙는 일이라/ 우리가 그렇게 잘 늙는 다음/ 힘없는 소리로, 임자, 우리 관참았지?/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때나 가서/ 그대를 사랑한다는 말은 그때나 가서 할 수 있는 말일 거야."

어떻게 살았는지도 물론 중요하다.

"연탄재 합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안도현 '너에게 묻는다' 전문.)

고단한 생을 견디다가 되찾은 고향길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

"누구도 꺾어버린 적 없는 자의/ 빈 호 주머니여/ 언제나 우리는 고향에 돌아가/ 그간의 일들을/ 울며 아버짐에 여쭙 것인가." (김사연 '코스모스' 전문.)

마지막으로 고은의 석 줄짜리 시 '헤어질 때'를 빌어 2006년을 보내야겠다.

"잘 가시오/ 잘 가시오/ 이 말이 이 세상 전체를 아름답게 한다." <소설가 다산연구소 제공>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NGO 칼럼

신영웅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예방해 투명사회를 만들겠다고 광주, 전남지역 33개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발표한 '반부패국민연대 광주·전남본부'(2006년부터 한국투명성기구로 개명됨)가 어느덧 7년이 되었다.

또 21세기에 알맞은 공직자를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진취적이고 올바른 공직자상을 제시하고 양성 하는 계기로 삼아 공직사회에 새로운 기풍을 조성하여 맑은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를 하고자 하여 제정한 청백리 상은 올해로 7회째를 맞고 있다.

이달 초 초일에 있는 국제투명성기구

아 한다. 광주광역시에서도 2005년을 1등 시민 1등 광주의 원년으로 삼아 의식의 변화를 통해, 새롭게 거듭나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니 실로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그동안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을 못 해 왔다. 이제는 나부터 실행에 옮겨야 한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연고주의와 온정주의를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한계를 과감히 떨쳐 내야만 부정부패라는 사회적 환부를 과감히 도려낼 수가 있다. 모두가 하나 되어 건강하고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노력

광주 '부패' 오명 이젠 벗자

(TI)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12위인데 반해 부패지수는 42위라고 한다. 다른 나라들은 경제규모와 부패지수가 상호 상관관계를 이루는데 유독 우리나라만이 예외라고 지적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부패유형이 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총체적 부패의 모델로서 '코리안 커넥션'이란 신조어가 생겼다고 하니 참으로 반성하고 부끄러워 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은 어떻게? 부패 방지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청렴도 측정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연속으로 광주광역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6개 시 교육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는 보고서를 올해 초 발표할 바가 있다. 실로 '1등 광주 1등 시민'의 구호를 무색하게 하는 결과이다.

현상이 이쯤 되면 투명 사회를 위한 부패 방지는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어

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우리 광주시민들은 그동안 사회 모든 분야에서 선도적 리더로서 국가와 사회 발전에 개혁의 주체로서 큰 역할을 수행해 이루어 왔다. 그래서 '예외라는 건 있기 마련'이라는 비과학적인 변명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정말 왜 화석이 들은 변화지 않았을까? 환경이 너무 적합해서, 아니면 너무 적응을 잘 해서일까?

진정으로 성공적인 사회개혁운동은 자발적인 국민의 의지와 참여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역사와 경험을 통해서 보아왔으며, 그것은 1등 시민 1등 광주가 되는 시작이며 맑고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역사적 과업의 시작이라 할 것이다. <한국투명성본부 광주·전남본부 사무총장>

보험 약관, 제발 알아볼수 있게 해야

7년 전 생명보험회사 설계사가 찾아와 암보험을 들으라고 해 부부 특약으로 가입했고 한달에 6만원정도 내고 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이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해 당시 보험 특약 사항 중 교통사고 등으로 입원할 경우 하루에 1만원씩 입원비가 나오도록 되어있었다.

그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병문안을 온 보험회사 다니는 친구로부터 알게 됐다.

뒤늦게 서류를 꾸러 제출해 보험금을 받았는데, 요즘 보험 약관 다 읽어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약관 중 보험 가입자들이 알아뉘야 할 중요한 점은 큰 글씨로 써 놓거나 문장에 줄을 긋는 등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한다. 깨알같이 써진 글씨를 일일이 읽어보지 않아 손해를 보지 않도록 말이다.

▲김기영·광주시 북구 운암동



화석어 '아루와나'



아루와나(arwana). 이름도 생소한 이 물고기는 조상 때부터 인간이전의 몇 백만년을 살아 왔고 지금도 페말리랜드 수족관 안에 산다.

소위 살아있는 화석이다. 이런 녀석들 때문에 잘 나간 진화 생물학자들 도 벙에 부딪혔다.

환경의 적응과 적자생존에 의해서 진화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들은 도대체 요지부동인 것이다.

그래서 '예외라는 건 있기 마련'이라는 비과학적인 변명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정말 왜 화석이 들은 변화지 않았을까? 환경이 너무 적합해서, 아니면 너무 적응을 잘 해서일까?

하지만 무던하게 생긴 녀석들을 보면 후자는 아닌 것 같고, 같이 살던 다른 동물들이 많은 변화를 거친 걸 보면 전자 쪽도 의심스럽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처럼 빠른 속도로 환경과정이 진행된다면 제 아무리 화석어라도 명맥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는 것이다.

또 하나 아루와나에게는 독특한 사냥법이 있다. 물가의 식물에 쉬고 있는 곤충을 몸을 뒤틀어 뛰어 올라 잡아먹는다. 그래서 '물 웅숭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최종욱 광주우치동물원 수의사 lovnat@hanmail.net

독자마당

광주일보를 읽고

수능 성적표에 실망한 학생 사진 게재 너무 했다

광주일보 12월 14일자 1면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다. 사진 기자나 신문 제작하는 부서 사람들의 생각을 의심할 수 밖에 없었다. 광주 한 여고 3학년 여학생들이 성적표를 받고 상반된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인데, 성적이 좋게 나오

지 않는 한 학생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 했는지 묻고 싶다. 시험도 못 봤는데, 신문 1면에 그것도 시험 잘 봐 웃고 있는 친구와 함께 내놓았을 때 그 학생의 기분은 어떻게. 대학 입시가 인생의 전부라고 느껴지는 지금 세상에 말이다.

▲반성하리·인터넷 독자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시설

재산가·지도층이 지방세 상습 체납해서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18일 지방자치단체 별로 공개됐다. 지방세 체납기간이 2년을 넘고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이번 체납자 명단 공개는 지난해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처음으로 시행됐다.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전국적으로 1천149명에 달한다. 법인 529곳, 개인 620명에 체납액은 3천602억원이다. 광주는 법인 18곳과 개인 22명에 96억원, 전남은 법인 15곳과 개인 15명에 105억300만원이었다. 이들은 당국이 명단 공개를 앞두고 6개월간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기회까지 주었으나 응하지 않은 '악질' 체납자들이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행위는 지탄을 받아야 한다. 사업체의 경영 악화나 부도로 인해 불가피하게 체납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체납자 상당수가 양도세의 10%인 주민세를 내지 않은 사람들로만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재산가도 볼 수 있다. 이들의 세금 체납을 묵

인하면서 서민들에게 납세를 독려할 수는 없는 일이다.

사회지도층의 체납도 문제다. 전남의 개인 체납자 가운데는 현직 도의원이 1억6000만원을 체납해 명단에 포함됐다. 행정자치부 등이 지난 10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합동 종합감사에서는 공무원이나 지방의원들이 체납자로 무더기 적발돼 물의를 빚기도 했다.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근간이 되는 세금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도 소명기회까지 주었으나 응하지 않은 '악질' 체납자들이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행위는 지탄을 받아야 한다. 사업체의 경영 악화나 부도로 인해 불가피하게 체납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체납자 상당수가 양도세의 10%인 주민세를 내지 않은 사람들로만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재산가도 볼 수 있다. 이들의 세금 체납을 묵

돈없어 신기술 활용 못하는 지역 벤처기업

광주·전남지역 벤처기업들이 신기술이나 신제품을 개발해놓고도 자금이 부족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렵게 개발한 기술과 제품을 돈이 없어 사장시키는 것은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를 위해서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남부대 기업경영전략연구소가 최근 광주·전남에 소재하는 128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경영 및 기술 애로 요인'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37.9%가 자금부족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다음으로, 전문인력 부족(26.6%), 시험연구시설의 부족(14.1%) 등을 들었다. 시험연구시설 부족도 결국 자금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지역 벤처기업의 절반 이상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역 벤처기업의 기술력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도 응답업체의 63.3%가 세계 최고수준이거나 이와 비슷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

고 답했다. 또한, 1개사당 국내특허권 보유 수는 1.9개, 해외특허권도 0.1개에 달했다.

하지만, 아무리 우수한 기술력도 자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다. 기술기반 기업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되면 그 기술의 싹을 다시 틔우는데 얼마만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생각해 볼 일이다.

유망 벤처에 대해서는 기술만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육성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자체 차원의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토양부터 조성해야 지역 벤처기업이 위축되지 않는다.

올해 국내 전체 벤처기업의 매출액은 100조 원을 넘어섰고 수출도 100억 달러를 넘겼다. 벤처기업이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른 것이다. 광주·전남 지역도 경제적 낙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고부가 가치의 스타 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아시아게임을 통해 수많은 스타들이 명멸해 갔지만 40~50대 스포츠 팬들의 뇌리에 남아있는 잊지 못할 선수가 임춘애다. 86년 서울아시아게임 당시 육상 800m와 1,500m, 3,000m에서 한국 선수로 사상 최초로 3개의 금메달을 목에 건 뒤 그녀는 '라면만 먹고 뛰었다'고 울먹어 국민의 심금을 울렸다. '유유를 마시고 연습하는 친구가 제일 부러웠다'고 말하던 당시 17세의 가녀린 그 '라면 소녀'는 '헝그리 정신'과 '의지의 한국인'의 대명사로 아직도 남아 있다.

보름 동안 '열사의 땅' 카타르 도하에서 펼쳐졌던 2006 도하 아시아게임이 지난 16일 막을 내렸다. 787명의 한국선수들이 땀과 눈물을 흘렸다. 3일 새벽 유도의 장성호가 통쾌한 하리 후리기로 첫 번째 금메달을 소식을 전한 이후 꼭두새벽에 날아드는 무명선수들의 투혼은 감동 그 자체였다. 만년 2인자 장성호는 '이번에 지면은 퇴하겠다'는 각오로 뛰었고 여자정구팀은 비인기종목의 설움을 딛고 금메달을

쟁취했다. 혼란 도중 눈에 부상을 입고 실명위기에까지 갔던 오희이 손혜경은 쓰러질지언정 포기하지않는 강철같은 의지로 사격 2관왕에 올랐다.

사이클 4km 개인추발과 4km 단체 추발 1위에 이어 메디슨에서 금메달을 따 3관왕에 오른 장선재는 250m 트랙을 무려 200바퀴 돈 뒤 1위로 들어오며 '머리가 어질어질하다'고 찢타미를 내

뱉었다. 그러면서 달 못했다. 목숨걸고 달렸다고. 여자 핸드볼 금메달의 주역 우선회는 빈혈증세에 시달리는 '당한 아줌마'였고 배근육이 파열된 우슈 동메달 이승균은 귀국후 곧바로 입원할 환자였기에 국민들은 박수갈채를 보았다.

그러나 굴욕감도 함께 맛봤아 했다. 그것은 축구, 야구 등 배부른 프로 스포츠 덕분이었다. 명색이 '프로'라는 선수들이 보여준 출전은 수치심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몸값이 수억원인지 모르지만 그들의 실력과 투지는 모두 아시아 2위에 불과했다.

/기현호 체육·여론대체부장 khh@

'배부른' 프로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